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호 【루계 제25907호】 주체107(2018)년 2월 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몽골대통령,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쿠웨이트국가수장,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국가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대통령,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윁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로씨야련방 대통령,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 싼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말리공화국 대통령,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콩고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토고공화국 대통령, 뛰니지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수리남공화국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수상, 모리셔스공화국 수상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네트에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의 전문을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가 1월 1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의 전문을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월 1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의 전문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월 23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가 1월 2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띠안또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도이췰란드공산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영국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높이 1월 인민경제계획 넘쳐 수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1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이 울려퍼졌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될데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긴 이곳 로동계급은 정초부터 일터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상원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전투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면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련이어 창조하여 당에서 준 세멘트생산과제를 제기일안에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앞장에 섰다.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이들은 1호소성로와 분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매일 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소성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채 식지 않은 로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내화물교체작업을 다그쳐 소성로보수과제를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만부하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였다.

보수단위들의 로동계급은 줄기찬 투쟁을 벌려 1호와 2호생산계렬의 정비보수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여 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합원료직장, 원료직장과 보수직장, 주강직장과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맡은 과제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1호생산계렬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일출봉광산과 화천탄광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혁명적인 총공세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왔다.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마다에서 더 높은 증산성과로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억세게 받들어나갈 이곳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앙양된 속에 높이 세운 1월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혁혁한 성과가 이룩되고 대건설전투로 들끓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만도 수만t의 세멘트를 생산보장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가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멘트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장진강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장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전력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이들은 변압기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고 효률높은 수차들을 적극 받아들인데 기초하여 정초부터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높이 세운 1월 전력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빛나게 완수하고 수백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발전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두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들은 겨울철조건과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설비점검에 대한 평가사업을 운영실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로동자들이 설비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였다.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특히 1호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효률높은 수차들을 도입한데 맞게 발전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주요설비의 정비보수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고 높은 효률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일별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3호발전소와 4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수자식려자기와 조속기를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전기기계직장과 자동화작업반, 보수단위의 로동자들도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와 효률높은 수차도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발전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자력갱생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 빠른 시일안에 자체의 힘으로 준설선들을 제작하며 취수구언수로준설공사를 다그치고 언제보강타입을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정대로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본사기자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1월 전력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호기당 출력을 부쩍 높여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하여 1천여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여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헌신적투쟁이 안아온 결실이다.

발전소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발전소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자대중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고 일터를 증산의 불도가니로 화하게 하였다.

열생산직장에서는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증산돌격전을 들이댔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교대별, 호기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타빈직장에서는 절약이자 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도관들에 대한 보온대책을 책임적으로 세우고 불량개소들을 찾아 제때에 퇴치함으로써 열손실을 극력 줄이였다. 운탄직장의 종업원들은 수십t의 석탄을 처리해야 하는 롯타의 정황이 조성되자 한사람같이 떨쳐나 빠른 시간안에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하차직장 종업원들은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중요성을 명심하고 석탄부림시간을 최대한 줄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자동화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열설비들에 수자식증기류량계를 도입하였다.

자력갱생직장의 주동작업반원들은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주강품생산계획을 10일이상 앞당겨 끝냄으로써 석탄분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용직장의 종업원들은 제도관교체작업이 제기되였을 때 서로의 힘을 합쳐가며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방법을 착상하여 단 2일만에 해제끼였다.

보수단위들에서도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보수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파기자 오철훈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안고

여러 축산기지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각지의 많은 축산기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1월 축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축산물증산성과로 빛내일 높은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분발해나선 각지의 축산기지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려나갔다.

흥주닭공장에서는 알깨우기공정의 콤퓨터조종체계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알깨우기률을 최대한 높이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부단히 습득하고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특히 공장에서는 서로 쫓기 잘하는 닭의 습성이 생산을 높이는데 부정적영향을 준다는것을 포착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결과 육성률을 높이고 폐사률을 낮추어 높이 세운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하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공장에서는 1월 닭알생산계획을 160%로, 고기생산계획을 188%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신의주닭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많은 콩깨묵을 절약할수 있는 콩깨묵발효방법을 먹이생산에 적극 받아들이였다. 그리고 농마, 섬유소 등을 분해할수 있는 효소제를 자체로 생산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 먹이의 소화흡수률을 높이였다.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첨가제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집짐승뼈를 리용하던 때보다 원가를 낮추면서도 인성분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을 늘여나갔다.

강계돼지공장에서도 당정책의 요구대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1월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정북돼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면서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적극 내세워 단백질이 많은 어느 한 곤충으로 돼지의 단백먹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이와 함께 각종 낟알짚을 일정한 공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돼지가 소화흡수할수 있는 영양물질함량을 높이였다.

구성닭공장, 사리원닭공장, 사리원돼지공장들에서도 높은 축산물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지금 각지 축산기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며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고려약생산성과 확대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아래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1월생산계획완수단위들이 계속 늘어나는 속에 관리국적인 고려약생산실적이 1월말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보건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약품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고려약생산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새해전투에 진입하였다.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이 새해 벽두부터 직접 수많은 원료, 자재들과 영농물자들을 가지고 여러 고려약공장들과 약초농장들에 나가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나갔다.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높아진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따라 관리국일군들이 담당지역들에 나가 생산현장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이신작칙으로 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공장별, 도별사회주의경쟁이 관리국적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1월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났다.

강계고려약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회천고려약공장, 정천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많은 고려약공장들에서 1월 20일까지 월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현지지도단위들이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강계고려약공장과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지방의 풍부한 약초자원에 의거하여 원료, 자재확보사업을 앞세우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소화제, 설사멎이약, 마가목기침단물약, 각종 보약 등 10여종의 약들을 더 생산하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 단위들의 뒤를 따라 만경대, 회천, 정천, 염주, 동림고려약공장들이 지난 1월 20일까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고려약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사리원, 연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의 종업원들도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대중약품, 상비약품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관리국적으로 새해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129.7%로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는 고려약생산부문안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하여 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지원사업 특히 농촌경리에 대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의 불길높이 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도와나서고있다.

단천시에서

단천시에서 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촌들에 보내줄 도시거름생산과 운반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시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어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식량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드세게 내밀고있다.

우리도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책임진 주인이다.

도시거름생산에 떨쳐나선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가두인민반원들모두가 이런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더 많은 도시거름을 생산하였다.

시에서는 여러차례의 집중수송을 조직하여 계획보다 넘쳐 생산한 수만t의 도시거름을 시주변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먼곳에 있는 농장들에는 진거름이나 집짐승배설물을 실어내여 로력과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동원되여 하천바닥흙을 파내기 위한 전투가 통이 크게 벌어졌다. 일군들이 하천들을 돌아보고 바닥흙성분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미량원소들이 풍부히 포함된 1천여t의 흙을 파내여 흙보산비료원료나 토양개량제 등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농촌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운산군에서

운산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영농물자들을 준비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군일군들은 농촌지원을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갔다.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 운산땅에 기어이 황금벌이 펼쳐지게 하려는 열의밑에 지난해보다 수백t의 도시거름을 더 생산하면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영농물자확보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켜가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가 앙양된 가운데 군에서 중소농기구전시회가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삽, 걸이대, 물초롱 등과 비닐박막, 분무기, 장넹이영양단지를 찍는 기계를 비롯한 수많은 영농물자들을 농장들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진 각오밑에 영농물자확보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금속공업부문에 더 많은 전극을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흥남전극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백두의 밀림이 파도쳐 설레인다

백두밀림이 파도쳐 설레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뜻깊은 12월의 그날을 전하며.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이룬 《11월대사변》의 장엄한 승전리성으로 천상천하를 진감시킨 그 걸음으로 백두산이 생겨 처음 12월의 강설을 헤치시며 장군봉마루에 오르신 우리 원수님!

번개와 우뢰를 앞세우고 때없이 폭우를 쏟아붓기도 하고 천하를 휩싸안을듯 강풍을 머치고 눈보라로 하늘을 메우며 사시절 낮이나 밤이나 진정할줄 모르던 백두산은 그처럼 험난한 개척의 천만고비를 돌파하고 민족사적대업을 성취한 영웅적추억을 안고 명봉에 오르신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모시여 실로 평표한 정기를 일장 내뿜었다.

성산이 생겨 엄동설한에 처음 보는 특별히 쾌청한 날씨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시며 기어이 안아오신 민족사적대업, 그 경이적인 승리의 눈물겨운 환희를 장군님과 마음속으로 함께 나누시는가, 장군봉마루에 거연히 서신 그이를 우러러 백두의 천고밀림은 파도쳐 설레이였다.

성스러운 추억을 부르고부르며!

※ ※

백두산,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마음속에 안고 사신 혁명의 성산!

그이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오르는 마음의 고향 백두산!

백두산에는 김일성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김정일조선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은 주체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며 영원한 등대이다.

백두산의 지위를 밝히신 그 심오한 정의에는 백두의 성스러운 력사에 대한 뜨거운 추억, 혁명의 성산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차넘치고있다.

천연원시림이 들어찬 깊은 골짜기, 맑은 물 흘러내리는 아늑한 계곡, 하늘을 떠받들듯 솟아오른 웅건장중한 봉우리…

언제 어느때부터인가.

보이느니 나무와 시내, 바위와 하늘뿐이고 들리느니 바람소리, 내물소리, 새소리뿐이던 태고의 밀림속 그 푸른 산자락, 그 유정한 물가에 한채의 작은 귀틀집이 서고 환히 트인 그 창공엔 붉은기가 날리고 클짜기를 바자처럼 둘러싼 천고의 밀림우에 수호신마냥 서있는 봉우리가 정일봉으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백두밀림은 자연의 기름가 아니라 소중히 간직한 추억으로 파도친다. 서리꽃 아름다운 백두산의 2월 빨찌산밀영에, 온 삼천리강토에 밝아온 환희의 그날을 전하며!

빨찌산전우들의 사랑과 지성이 깃든 소박한 귀틀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것은 민족의 일대 경사였고 하늘이 내린 민족의 대행운이였다.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준 백두의 고향집,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혁명의 고향집이 있어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승리의 한길만을 줄달음쳐올수 있지 않았던가.

탄생부터가 비상한 의미를 가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비범성으로 일관된 한생이였다.

시작부터가 빨찌산입색이였다. 생가도 빨찌산집이였고 장래를 축복해준 사람들도 빨찌산용사들이였다.

그이의 요람이 된것도 빨찌산녀대원들이 자기 군복의 솜을 한웅큼씩 뜯어내여 누빈 폭우이포단이였고 장난감도 빨찌산대원들이 깎아만들어 올린 권총과 초연이 배인 쌍안경이였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처음 들으신것 역시 빨찌산의 구령소리였고 배우신 첫 노래도 빨찌산의 혁명군가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결사옹위의 성벽을 쌓고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빨찌산대원들의 숭고한 모습, 사상과 넋과 정으로 얽힌 혈연의 세계, 열렬한 조국애와 백절불굴의 의지—

우리 장군님의 성장에 귀중한 자양분으로 된 항일혁명의 만단사연을 전하고저 오늘도 백두의 밀림은 파도쳐 설레이는것 아니던가.

고난의 눈보라를 못 잊어 백두의 밀림이 파도쳐 설레인다.

빨찌산밀영생활은 간고하였다. 산나물죽과 삶은 통강냉이가 고작인 빨찌산생활에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 못지 않게 어려운것이 기아와의 싸움이였다.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을 《어린 장군》이라고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면서 다함없는 정과 열을 기울인 투사들,

생사를 내건 적구활동속에서도 희생적으로 식량을 구해오고 한담요속에 누워 옛이야기도 들려주며 우등불가에서 구운 감자의 껍질도 벗겨주던 잊지 못할 빨찌산대원들을 그리시며 한명, 한명 그들의 이름을 외우실 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고려치신 뜨거운 회억의 파도를 백두산은 자기의 천리수해에 오늘도 고스란히 담고있는것 아니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정을 주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투사들의 희생앞에서 빨찌산의 아들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날의 쓰라린 아픔도 고이 안고있어 백두밀림은 그리도 세차게 파도치는것 아니던가.

그렇다. 조선혁명의 총전자 백두밀림은 혁명의 성산에서 탄생하시여 고난에 찬 빨찌산생활로 생의 첫걸음을 떼시였으며 항일의 준엄한 전장에서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체현하신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의 전설적인 성장의 력사를 전하고저 년대와 세기를 넘어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설레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습니다.》

백두의 밀림은 파도쳐 설레이며 불아치는 광풍을 휘어잡은 조선혁명의 총대의 력사를 잊지 말라고 천만의 심장을 쾅쾅 두드린다.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에서 이 나라 강산을 폭우이로 맞춰보시며 삼천리조국땅을 한품에 안으시던 그 시절에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는 빨찌산의 총대를 손에 익히시였고 인생도 혁명의 총대와 함께 시작하시였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생 빨찌산의 총대를 사랑하시였고 빨찌산식으로 총대를 다루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무모한 칼부림에 끝까지 총대로 맞설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가 아니며 백두산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빨찌산정신이 만장약된 혁명의 총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세계의 정의를 가르치신 불세출의 명장이시다.

백두밀림은 파도쳐 설레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영광스러운 년대기우에 미증유의 사변들을 광휘롭게 아로새기신 빨찌산장군의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혁명생애를 노래하고있다.

16년전 2월이였다. 인민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전전선을 종횡무진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생신날 하루만이라도 부디 쉬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

하건만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였던가.

힘드시고 생각이 많아지실 때면 백두산에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시고 빨찌산밀영시절을 추억하군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의 2월에도 백두산을 찾으시여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나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시작한 첫 시기부터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왔으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나의 혁명령도사는 선군혁명령도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백두의 천리수해는 백두산장군의 선언에 파도쳐 화답하였다.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령장의 억척의 신념, 떼지어 달려드는 제국주의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통장훈을 부르시는 폭풍기상을 백두밀림은 랭철한 눈보라로 세상에 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한생이다.

총포성이 울리는 항일의 전구에서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였으며 총대강화를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총대우에 정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이 신념으로 예속과 망국을 쳐갈기고 자주와 존엄, 강성을 떨치는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신 백두의 장군!

참으로 그이를 모신것은 행운중 행운이였다.

위대한 령장에게 매혹된 세계는 또 얼마나 경탄과 부러움에 끓어번지였던가.

그즈음에 어느 한 나라의 군원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크고작은 전쟁을 많이 치른 로장이였고 군사분야에 해박하여 세계가 공인하는 전형적인 무관이였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과 자리를 같이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세계정치군사정세로부터 조선반도정세에로, 국제적문제로부터 인간적문제에로…

국경과 제도를 초월한 담화를 펴시는 위인과의 석상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담화과정에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기질과 인품에 완전히 반한 그는 어쩔수없이 끌리는 넋으로 그이를 점도록 우러르다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부관의 자리로 조용히 옮겨앉았다. 자기스스로도 놀라운 돌발적인 행동이였으나 그는 오랜 무관답게 재복을 정돈하고 경건한 자세로 자기는 이제부터 김정일장군님의 부관이 되겠다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무슨 통담을 그렇게 하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제의를 거듭 만류하시였다.

허나 그는 통담이 아니라고, 자기는 진정이라고 하며 그냥 한본새를 형클지 않았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 겸손한 말씀을 삼가하라고 하시며 크게 웃으시였다.

로장의 가슴은 커다란 충격으로 더욱 높뛰였다. 마치 천하가 흔들리는듯 호호탕탕한 그 웃음소리는 천만대적도 기절초풍할 뇌성이였던것이다. …

그때 백두산은 자기의 메아리를 또다시 들었다. 혈전의 격류가 끓는 준엄한 년대의 백두산에서 하늘가에 치솟은 장군봉의 도도한 기상과 억센 기개, 천지풍파를 물리치는 그 무한대한 용력을 그대로 닮은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백두밀림은 파도쳐 설레이며 자랑하지 않았던가.

백두밀림의 설레임소리는 정녕코 자연의 숲소리가 아니다.

이 땅에 폭풍노도치는 위대한 력사의 흐름소리, 그 력사를 창조하고 이끄는 위대한 주인공의 발걸음소리이다.

그 장엄한 설레임속에는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빨찌산정신이 꽉 들어차있다.

새 천년대에 들어섰을 때였다. 세계가 새 천년대를 어떻게 맞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그 무슨 기념비전림이요 하며 떠들 때였다.

바로 그러한 때 조선혁명의 발원지에서 울린 빨찌산의 아들의 선언이 이 땅을 진감하고 세상을 뒤흔들었다.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첨예합니다. 앞으로 우리 혁명앞에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련이 닥쳐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걸으시였던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두산의 정신입니다. …

감히 조선혁명에 도전하며 제국주의메무리들이 머리를 쳐들 때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의 정신, 백두의 담력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무섭게 다몰려대신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

지나온 준엄한 년대들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반미대결전의 승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빨찌산정신의 승리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기적적인 힘도 빨찌산정신에서 분출되였다.

백두밀림은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를 노래하며 파도쳐 설레인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평생 혁명보위, 조국수호의 전장에 계신 우리 장군님의 영웅적투쟁사가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의 주인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음을 소리높이 구가한다.

주체103(2014)년 10월 2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장군봉에 거연히 서시여 조국강토를 한품에 안으시는 그이의 모습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력사의 광풍을 부시며 조국을 지키고 인민을 지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백두산정에 서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

백두밀림은 자기의 위대한 주인이 일으키시는 시대의 폭풍을 안고 파도쳐 설레이였다. 혁명가들의 신념과 의지를 끝날같이 버려주고 그들을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이 세상의 온갖 잠바람을 쓸어버리는 혁명의 불바람으로 천하가 진동하였다.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꽃피우고 세계를 정화시킬 백두의 칼바람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적신념을 벼려주고 최후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백두밀림이 폭풍쳐 설레인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철의 대오처럼 대지를 뒤덮으며 장엄하게 설레인다.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주체조선의 환희와 긍지, 그 휘황찬란한 앞날에 대한 축복의 파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더 잘 모시고 받들어나가려는 천만심장의 거세찬 박동이다.

2월의 백두의 밀림이 파도쳐 설레인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끝없이 설레인다.

위대한 장군님의 넘원을 꽃피워갈 천만아들딸들의 불타는 열망으로 백두의 밀림이 낮이나 밤이나 폭풍쳐 설레인다.

본사기자 량 순

절세위인들께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건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절세위인들께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건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1일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사회과학원 원장 리해정동지, 과학, 교육,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무적필승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부원장 박사, 부교수 서광웅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무력건설사상은 혁명무력의 본질과 사명, 그 건설의 합법칙적단계와 방법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완성된 군건설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규무력건설사상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며 군건설에서 혁명무력의 력사적계승성을 고수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식으로 혁명군대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외세도 감히 침범할수 없는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자주정신, 자위의 원칙을 천명하시고 새로 창건되는 정규무력을 항일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한 혁명군대,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항일의 고귀한 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고 우리 식으로 일관된 정규무력건설사상이 있었기에 인민군대가 창건후 장장 70년간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며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제1부관장 교수, 박사 박경식동지는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수행에서 출발점으로, 관건적고리로 되는 군사정치간부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시고 여러 군종, 병종 부대, 구분대들의 조직편성사업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군건설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교육기관들이 련이어 창설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핵심골간으로 하는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로운 군사정치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자라났으며 해방된 조국땅에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현대적인 생산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면서 자체의 강력한 병기공업을 창설하시였다.

참으로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군사상과 리념,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탁월한 령장》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박사, 부교수 정만호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할데 대한 군건설강령을 천명하시여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을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안에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적령군체계를 확립하시였으며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선인민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를 받으며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자라난 바로 여기에 그 어떤 천만대적도 단애에 처부실수 있는 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힘의 근본원천이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금성정치대학 부학장 박사, 부교수 임룡호동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는 억척의 지지점으로,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으며 반제군사전선의 제일선에 선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당과 수령의 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며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대업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인민군대를 완벽한 실전능력을 지닌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혁명군대로 되였다.

인민군대는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만능병사,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며 전군의 전법강군화, 다병종강군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께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총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장군님의 기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은 모든 사업의 기준이다.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할 때 인민들의 속마음을 잘 알수 있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고하고 일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자면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나날들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이 농촌에 나가 사업한 정형을 보고드리였다.

일군으로부터 농촌에서 해당 일군들과 사업한 정형이며 농사작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집에도 찾아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한 정형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한가지 제기된 문제가 있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농장원들이 장판지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아주 좋습니다. 내가 오늘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실가!)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을 정답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의 주인을 만났던 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협동농장마을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뜨락또르를 보내달라, 비료를 보내달라고 제기하는 일군들은 많이 보았지만 밥사발을 해결해달라고 제기하는 일군은 처음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인민생활의 진짜주인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동무가 장판지를 해결해달라는 농촌마을 안주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우리가 인민들이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니 기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넣을수 있으니 기쁘지 않은가고 하시면서 동무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였다.

일군은 격정이 북받쳐올라 그만 머리를 숙이고말았다.

사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장판지문제를 보고드리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장판지문제가 그처럼 그이께 기쁨을 드릴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판지를 해결해달라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한것뿐인 자기를 치하해주신 깊은 뜻이 그의 가슴에 끝없이 파고들었다.

인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는 일군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림정호

김영남동지가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헬싱키

핀란드공화국 대통령

싸울리 니이니스뙤각하

나는 당신이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월 30일 평 양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여러 계기들에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하여 도서들과 신문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으며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혁명선렬들이 백두의 밀림에서 발휘한 투쟁기풍, 생활기풍으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일군은 작업의 쉼참을 리용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 대한 해설을 감동깊게 진행하였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날의 해설모임은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백두의 밀림에 나래쳤던 필승불패의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쌀로써 받들어나갈 불같은 열의가 끓어번지게 하였다.

로농통신원 방대삼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의 나날에 보여주신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자

숭고한 뜻 충정으로 받들어가리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 사업은 장군님을 영원히 우리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2월이 왔다.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 땅이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고있다.

추억은 주체99(2010)년 2월 9일에로 물결쳐간다.

못 잊을 그날 인민을 위한 쉬임없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속에는 비날론이라는 이름이 내 조국의 이름처럼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 인민과 비날론이 하나의 화폭으로 새겨져있었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난속에서 주저앉았던 비날론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울 결심을 굳히시고 이곳 로동계급을 거창한 창조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전투장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진격의 화살표따라 승리의 성공탑을 하나하나 마련해가며 우리의 비날론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이 무엇인가를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에도 그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자기들의 일터에 어려차례 령도의 자욱을 남기시였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이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 이 역사를 변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내달린 2.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또다시 신들메를 조여매고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을 이어가고있다.

이들은 75t순환비등층보이라를 개건보수함 단계별목표를 내세우고 시간을 주름잡으며 긴장한 격전을 치르고있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각 직장에서 달려나온 전투원들이 1차적으로 제기된 75t순환비등층보이라 1호기개건보수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중량이 수십톤나 되는 장치들과 구조물들을 어려개나 해체 및 교체하고 증기생산량을 높일수 있게 보이라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투의 순간순간은 그대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자력갱생의 무서운 위력으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총돌성없는 전쟁이다.

화학공업성과 련합기업소일군들은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돌격전의 기수가 되어 앞채를 메고 뛰고있다.

기초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지난해 일떠세운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공정에서도 지금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 바쳐오신 애국헌신의 로고를 뼈에 새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발휘하며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충성

영광이 땅에 새겨가는 헌신의 자욱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온정속에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진변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이 새해농사차비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뜻깊은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설레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려차례 신암땅을 찾아오시여 신암협동농장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농장인것만큼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시며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일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은 언제나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지난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많은 알곡을 증수한 이들의 심장마다에는 올해에 또다시 승전고를 울릴 굳은 맹세가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때 반드시 풍요한 가을이 마련된다는 확신이 그들의 심장마다에 다시금 새겨졌다.

밤길도록 포전별품종배치와 평당 포기수문제, 뜨락또르수리와 작업반, 분조별거름생산과제 등을 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벌써 풍요한 가을이 보이는듯싶었다.

새해 첫 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청년분조에서부터 타올랐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해마다 농사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분조에서 일하는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받아안은 사랑과 영광을 지나깨나 생각하며 이들은 끓어넘치는 보람과 의리의 맹세를 안고 농장의 앞장에 서서 누가 보건 말건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이런 그리움의 마음에 떠받들려 모든 작업반들의 농사차비전투장에서는 날마다 위훈이 창조되였다.

이들은 새해 첫 한달동안에 정보당 거름은 수십t, 흙보산비료는 5t 그리고 《신양2》호복합균에 의한 발효퇴비는 수백t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계화작업반원들도 기세드높이 전진해나가고있다. 논밭깊이갈이를 잘하여 농사를 더 잘지어야 한다고 하시며 능률높은 뜨락또르들을 보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뜨거운것을 삼키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얼어붙은 대지에 우렁찬 발동소리를 울려온 이들이였다.

올해에도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온정이 깃든 뜨락또르의 운전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매일 수십t의 거름을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농촌기계화초병이라는 영예감을 간직하고 위훈의 메아리마당 발동소리 높이 울리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의 모습도 미덥지만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뜨락또르들의 수리정비를 여러날이나 앞당겨 끝낸 그들의 투쟁소식은 더욱더 감동적이다.

올해의 농사차비전투에서 보답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신암리 사람들의 드높은 열정,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쌀로써 우리 당을 받들어갈 비상한 정신력에 뿌리를 두고있어 그토록 뜨거운것 아니겠는가.

그리움을 힘이라고 하였다. 신암땅에 흐르는 그리움의 날과 달들은 말하여준다.

어제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투쟁한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알곡증산의 승전고를 높이 울려갈것이라고.

본사기자

그날의 당부 심장에 새기고

뜻깊은 2월을 맞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젖어든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그 로고를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지금도 귀기울이면 영원히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에 우리들에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가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그날은 주체98(2009)년 1월 15일이였다.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 전해에 강선의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마음쓰시며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깊은 감회속에 오래도록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생애에서 그 사상과 실천의 중핵을 이룬것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정신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이 높으신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지금도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비단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고,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들이 비단옷을 입을 때 자신께서도 야전복을 벗겠다고 하신 가슴치는 그 말씀.

그때 우리는 모두 울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경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전직공장들에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리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날에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당부는 오늘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심장을 새차게 고동치게 해주고있다.

온 나라 인민을 우리 수령님들의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안을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하자고 마음속결의를 다지며 집단적경쟁으로 비단실생산을 늘어가고있는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다.

기대앞에 서면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그 음성이 귀전에 메아리쳐와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나어린 처녀들이 한해계획을 2배, 3배 지어 6배로 넘쳐 수행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드는 길에 바쳐가는 자기들의 열정이 모자라는것만 같아 밤잠도 미루어가며 일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생산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기업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짜고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갈 의지를 가다듬군 한다.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우리 공장을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겠다는것을 다시금 결의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지배인 김명환

높은 목표, 완강한 실천

형제산구역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시고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최근년간 형제산구역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구역안의 도로들의 기술상태가 개선되고 강하천들이 큰물에도 끄떡없이 정리되였으며 많은 공공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어느날이였다.

큰물로 구역안의 어느 한 도로구간에 륜전기재들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즉시 구역일군들의 비상회의가 열렸다.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긴급대책이 세워졌다.

온 구역이 떨쳐나섰다. 낮에 밤을 이어 전투가 벌어지고 륜전기재를 비롯한 많은 기자재들이 동원되여 도로보수공사는 짧은 기간에 결속될수 있었다.

이무렵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가 인민을 위한 하나하나의 창조물에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새꽃한 량심을 바쳐가는 군인건설자들처럼 일해왔는가. 그렇다. 국토관리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실질적인 품을 들이지 않은것 같다.

국토관리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이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그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목표를 통이 크게 세웠다. 정작 목표를 세우고 일판을 벌리자고 하니 아름차고 조건은 보다 어려웠다.

이때 당조직에서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목표를 높이 세워야 비약할수 있고 일자리도 죽죽 나게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구령을 치며 힘차게 내밀리자.

일군들도 적극 호응해나섰다.

일군들은 도로보수를 국토관리사업의 중요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도로보수와 관리를 잘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으며 구역의 면모도 일신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수십리구간의 도로를 포장하면서 폭을 넓혀야 할 구간은 넓히고 평탄성이 잘 보장되게 보수하자니 품이 어간만 많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각오로 가슴을 불태우며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애로와 난관을 헤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문제는 자재보장이 따라서지 못한것이다. 일군들은 누가 자재를 가져다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구역의 책임일군들은 자기 힘을 믿고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나선 이들을 두팔걷고 도와나섰다.

이에 고무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m의 도로를 보수해도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되도록 책임성을 높여나갔다.

품을 들인 보람으로 짧은 기간에 구역의 도로들은 점차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큰물에도 끄떡없게 정리된 강하천들, 새 모습을 드러내고있는 다리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여기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완강한 실천력이 깃들어있다.

오늘도 이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자기 사는 고장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국토관리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구역의 면모를 일신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앞새는 자랑할만 하다.

방영진

애국탄증산을 위한 탄광들사이의 만리마속도창조

2017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진행

애국탄증산을 위한 탄광들사이의 만리마속도창조 2017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이 1월 31일 정성시에서 진행되였다.

석탄공업상 문평학동지, 관계무문, 경쟁참가단위 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우팔동지가 경쟁총화보고를 하였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지난해에 애국탄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탄광들에서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수십만의 석탄을 증산하여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줌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석탄생산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킴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과업을 높이 받들고 애국탄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쟁순위가 발표되고 사회주의경쟁우승기가 자강도공급탄광, 강서탄광에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령도업적을 빛내이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함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함주군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하는것, 이것이 군당위원회가 첫째가는 힘을 넣은 문제였다. 대중이 자기 단위의 령도사적과 유훈을 환히 꿰뚫을 때라야 그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완강하게 떨쳐나설수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군당위원회가 령도업적단위인 함주군 평풍력염소목장과 흥상청년탄광에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발기하고 내민것도 바로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군당위원회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인명되여오자바람으로 령도업적단위들을 돌아보면서 주창석 군당위원장이 절감한것은 혁명사적교양실들이 잘 꾸려지지 못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해에 세차례나 찾아주신 가슴뜨거운 사적이 깃들어있는 동봉협동농장의 혁명사적교양실이 응당한 수준에서 꾸려지지 못하였으며 평풍력염소목장과 흥상청년탄광에는 연혁소개실만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발굴고증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전축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밀고나갔다. 특히 동봉협동농장의 혁명사적교양실을 군은 물론이고 도의 본보기로 꾸릴 목표를 세우고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군당위원회 부위원장과 동봉리당위원장, 평풍력염소목장 초급당위원장을 평양에 보내여 그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 단위의 혁명사적교양실들을 돌아보며 많이 배우게 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내외부건축형상안은 물론이고 학술배렬도작성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학습과 선전선동활동 등 기거와 공정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인식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지난해와 올해에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함주군현지지도 차수와 단위, 현지교시내용에 대한 군급기관 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하였다. 이어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학습을 그 관철방도를 찾는 사업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농업정책해설선전대, 당일군경제선동대의 활동도 군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과 유훈을 대중에게 깊이 체득시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데로 지향시켰다.

이 과정에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되였으며 유훈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설수 있게 되였다.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제일무기, 보검은 무엇인가.

주체조선의 전통적인 투쟁방식, 전진방식인 자력갱생이다.

군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을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을 가져왔다.

함주추상2호발전소건설과정을 실례들어보자.

2년전 봄 발전소건설장에서는 군당집행위원들과 함주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해당 단위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1년전에 시작한 발전소건설이 왜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가 하는 군당책임일군의 물음에 일군들은 자재가 절렸소, 자금이 부족하오 하면서 우는소리를 했다.

군당위원회는 발전소건설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패배주의를 송두리째 불사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군의 전반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부터 발동시켰다.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신발창이 닳도록 뛰면서 자재를 해결해왔다.

제일 어려운 250여m의 물길굴뚫기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조성되자 돌격대원들은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즉시 공사장으로 떠났다. 가정에서 기른 돼지며 수백킬로의 작업장갑 등 많은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물길굴에 찾아들어간 군당책임일군은 돌격대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앉았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의 내용을 실감있게 들려주면서 군당책임일군은 절절히 호소하였다. 오늘 주저앉으면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금진강에 계단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문제, 물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없다. 뎅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쳐부신 항일혁명투사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우리 손으로 발전소를 기어이 일떠세우자.

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떨쳐나섰다. 그처럼 어렵다던 물길굴뚫기를 앞당겨 끝내고 발전소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의 무더위에 산세험한 령을 넘어 찾아오시였던 평풍력염소목장 실태를 료해하던 군당책임일군은 장군님의 온정이 깃든 젖가공설비들이 정상가동하지 못하고있는것을 알고 원인을 따져보았다. 전기사정이 긴장해 세워두었다는것이였다.

방도가 없는가. 목장에서 20여리쯤 떨어진 곳에 이전에 건설하였던 소형수력발전소가 하나 있기는 한데 큰물피해로 파괴되여 할수 없다는것이 일군들의 대답이였다.

패배주의관점, 이것을 뿌리째 잡고서는 유훈관철도 령도업적옹호고수도 생각할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과 목장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물길 및 조절못보수와 발전기대보수를 7일만에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젖가공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치즈와 요구르트를 군내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차례나 찾아오셨던 금진강홍봉청년발전소와 함주추상1호발전소의 발전기들에 수자식자동조종장치를 새로 달아들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인민병원과 온면원, 려관의 전기화를 실현하고 군안의 수천세대의 가정과 지방산업공장들, 협동농장들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해줄수 있게 한것, 군경기장개건보수와 수많은 살림집건설 및 보수를 진행한것, 흥상청년탄광개건보수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는것,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최근년간 농사에서 장훈을 부른것을 비롯하여 군당위원회가 자력갱생을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이룩한 성과는 적지 않다.

보다 큰 성과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을 제질화한 정신력의 강자들로,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선봉투사들로 키운것이다.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그러나 몇해전까지만 해도 군의 실태는 그렇지 못하였다. 많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드린데 만족을 느끼면서 더욱 비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파렬구를 낸 사람들이 바로 군당책임일군들이였다.

평풍력염소목장을 개건하기 위한 투쟁과정이 이것을 실증해준다.

10여년전에 건설한 건물들과 염소우리들을 개건하고 물판조성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령도업적을 빛내일것을 결심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군급기관 일군들부터 불러일으켰다. 군당위원회는 과학기술보급실, 군인민위원회는 평풍력려관, 군인보안부는 풍송고급중학교 평풍력분교를 맡는 식으로 분담안을 발표하고 매주 현지에서 총화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내밀었다.

군당위원회는 염소우리와 청년합숙개건공사에서 협동농장들사이 경쟁을 조직하고 본보기작조와 일반화를 옳게 배합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순간도 답보를 모르고 전진하는 투쟁환경을 심어주었다. 지난해 7월 군안의 협동농장당, 행정책임일군협의회를 조직하고 청년합숙과 염소우리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고 경쟁을 선포하였다. 본보기로 꾸려진 천원청년작업반 청년합숙에서 2차에 걸쳐 보여주기와 중간총화를 하고 강하게 내밀어 9월말까지 십여동의 청년합숙, 염소우리, 먹이창고개건공사를 끝냄으로써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안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동봉협동농장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운 군당위원회는 군급기관 일군들을 발동하여 소재지마을을 변모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농장일군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리당위원회는 대중을 발동하여 자체의 힘으로 한중간이 말린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 등이 그윽하게 갖추어진 수백㎡의 봉봉원을 훌륭히 일떠세워 농장원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것이 군당책임일군들의 주장이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 주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 끊임없이 돌진해나가는 군당위원회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김향란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대 혜산 출발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이 시작되였다.

출발모임이 1일 혜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답사행군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조선청년운동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박명진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을 맞으며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전체 답사행군대원들이 이번 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굴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답사에 참가한 청년동맹일군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창조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모든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출발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는 공화국기, 청년동맹기발, 답사행군대기발을 휘날리며 력사의 땅 보천보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행군을 시작하였다.

혜산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적인 구호들과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답사행군대원들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평양, 백두산지구 체육촌, 사리원, 고원 등에서 축구, 롱구, 배구, 탁구, 속도빙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1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였다.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주체체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 온 나라 체육인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훈련열풍속에 다지고 련마한 높은 정신력과 육체기술적, 전술적능력, 우리 식의 체육기술을 경기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경기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월 31일 하영수를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예술단성원들은 총련의 예술을 세계해외교포예술의 본보기로 빛내여주시고 재일동포예술인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간다

온성군에서

1000t!

이것은 올해 온성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세운 대용비료생산목표이다.

지난 시기에 비해 3.5배나 높은 통이 크고 아름찬 목표이다. 하지만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 정초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는 충천하고 배심 또한 든든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해 분발해나선 군의 책임일군들이 지난 시기 농사과정을 분석하면서 다시금 절실히 자각한것이 있다. 그것은 군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더 많은 대용비료와 산성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군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에 흔한 풍화탄으로 고농도후민산비료를 질적으로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큰 덕을 보았었다. 이 비료로 종자처리를 진행하니 싹틔우기률이 10%이상 높아지고 싹트는 기일도 2~3일이나 앞당겨졌으며 초기생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소석회대신 군에 흔한 린회석을 토양개량제로 리용함으로써 지력을 개선하고 린비료효과까지 보았다. 그리하여 왕재산, 고성, 룡인, 강안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극심한 가뭄이 지속된 속에서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고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경험은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자원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완강히 실천할 때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다수확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었다.

자력자강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풍화극창건 일환없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이런 불타는 자각과 의지를 안고 떨쳐나선 리경섭, 양창길동무를 비롯한 군책임일군들은 풍화탄을 주원료로 하는 고농도후민산비료생산목표를 전례없이 높이 세우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여기서도 역시 일관하게 강조된 문제가 바로 군의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였다.

고농도후민산비료생산에 필요한 알카리성제료대신 군의 실정에 맞게 나무재와 소때설물을 리용하기로 하고 그 확보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비료를 만들자면 풍화탄과 함께 뇨소비료와 암모니아수가 있어야 하는데 군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우에서 보장해주기를 앉아서 기다릴수만 없었다.

일군들은 군의 실정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결심하고 사색하며 애쓴 결과 나무재와 소때설물을 대신 리용할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원료확보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이미 지난해말부터 원료채취전투를 힘있게 내밀어 1월초까지 1000t의 풍화탄과 수십t의 나무재, 소때설물을 확보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빠른 시일안에 주원료분쇄를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10명의 일군들을 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파견하여 원료분쇄전투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린회토생산목표를 지난 시기보다 1.5배나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1월말현재 60%의 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기의것을 살리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각오와 의지이자 자강력의 높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자원에 의거하여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이들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장은영

소출을 높일 방도를 찾아쥐고

연산군 대평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연산군 대평협동농장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하천주변의 토전에 대한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지난해 10여정보나 되는 이 논에서의 소출은 변변찮다고 볼수 있었다. 그러나 들인 품에 비하면 만족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인은 논에 모래기가 많은데 있었다. 결국 거름을 많이 내고 비배관리를 잘한다고 하여도 높은 소출을 낼수 없었다.

이 사실은 일군들의 심중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땅인가. 비록 어떠가지 원인에 의하여 지력이 높고낮은 땅은 따로 있을수 있다. 그러나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수확을 내수 있는 땅, 그렇지 못한 땅이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토전에서 다같이 높은 소출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방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그들의 귀전에 그 논에는 거름을 많이 내는것도 좋지만 흙 한줌이라도 더 까는것이 낫다고 하던 오랜 실농군들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렇다. 토지개량을 선행시키지 않는다면 소출을 높이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새해 첫 전투로 모래기가 많은 논에 대한 흙깔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있었다.

흙깔이전투를 성과적으로 내밀기 위한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농장의 로력으로 한주일정도의 기간에 정보당 수백t씩 흙깔이를 진행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무식질함량이 많고 칼소, 린, 카리를 비롯한 영양원소가 포함된 흙이 있는 원토장도 가깝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군들은 무조건 하루에 얼마만큼씩 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업을 조직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농장원들에게 하천주변논의 토양구조는 어떠하며 그것은 알곡생산에 부정적영향을 미친다는것,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깔이를 해야 한다는것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이와 함께 정당 얼마만한 흙을 깔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응당한 효과를 볼수 없다는것 등을 구체적사실자료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인식시키였다.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이신작직은 높은 흙깔이전투실적으로 이어졌다.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밭벼농사를 중시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시기 농장의 여러 정보의 논벼포전은 지력이 변찮았으나 높은 소출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물이 부족한 논이였기때문이다.

이 논에서 계속 종전의 농사방법을 답습한다면 언제 가도 소출을 높일수 없었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이런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다. 대담하게 지난 시기의 방법에서 벗어나 물이 부족한 논에서도 최대의 소출을 낼수 있도록 작전하자.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올해 물이 부족한 논에 다수확품종의 밭벼를 심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종전보다 정보당 소출을 2배이상 높일수 있었다.

사실 농장원들에게 있어서 밭벼농사는 생소한것이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배심은 든든하였다.

농장원대중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준비시킨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이 그들의 립장이였다.

농장원들에게 밭벼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내용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여기서 중시한것은 하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반들에서 진행하는 농장원들의 모임을 리용한 기술학습이였다.

일군들은 길지 않은 이 시간을 리용하여 작업반기술원들이 밭벼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도록 하였다.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그 어느 포전에서나 다수확을 내기 위한 일군들의 투쟁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올해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해나간다.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촬영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외무상 리용호동지는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로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도래하고있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월 31일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배회하던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애국애족의 통일의지, 평화수호의 대용단에 의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대화에서 좋은 결실들이 맺어져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고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조선반도정세완화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미국당국자들은 북남대화를 저들이 가해온 전례없는 제재압박의 결과로 여론을 오도하고있으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평화의 장을 열어나가는 시기에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의 현 무력증강책동은 그 성격과 내용, 투입되는 병력과 전쟁장비들을 놓고볼 때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것으로서 북남사이의 화해과정을 막고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위험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다.

미국은 또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깨여지게 된다면 미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유엔은 마땅히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온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위험한 놀음들을 벌려놓는데 대하여 침묵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나는 당신이 유엔헌장에 따르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해치는 미국의 핵전쟁장비배비와 핵전쟁도발책동에 심중한 주목을 돌리고 이를 완전히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기대한다.

당면하여 당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절차규정 제2장 6조에 근거하여 북남관계개선과정을 환영하고 주변나라들이 그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데 대한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킬것을 요구하는바이다.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운 대책

안악군 엄곳협동농장에서

안악군 엄곳협동농장에서 올해농사차비를 깐지게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농장에서는 모판자재들을 전부 확보하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것은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비상한 각오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가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농업전선에서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새기며 지난해농사정형을 분석해보던 농장일군들은 제7작업반의 농사경험에 주목을 돌리였다. 농사를 제일 잘 지었기때문이였다. 따져보니 벼모를 잘 키운데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었다.

일군들은 작업반의 모기르기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모판판리에서는 특별한것이 없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모판들에 질좋은 부식토를 충분히 내고 특히 활창대를 넉넉히 마련하여 리용한것이였다. 결국 모판마다 비닐박막을 든든히 씌워주어 이른봄에 모들이 랭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이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반별활창대소요량을 따져보았다. 농장적으로 많은 활창대가 더 필요하였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방도는 명백하였다. 이 작업반에서처럼 활창대감으로 갈대를 리용하는것이였다. 그러되 갈대를 여러대씩 묶어 리용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곧 해당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작업반별로 갈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투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짧은 기간에 각 작업반들에서는 충분한 량의 갈대를 마련하였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판자재준비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결과 1월중에 농장적인 모판자재확보사업을 결속하게 되였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 역시 눈길을 끈다.

이미 농장에서는 지난해농사결속을 하면서 동시에 우월성이 확증된 발효퇴비생산을 다그쳐 포전들에 정보당 2t이상씩 낼수 있는 충분한 량을 마련하였다. 계획한 흙보산비료생산도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었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농장의 실정에서 거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야 하였다.

농장의 각 방향으로 뻗어나간 물길들의 바닥흙에 이묵이 집중되였다. 여러해동안 쌓이고쌓인 바닥흙은 질좋은 거름원천으로는 그저그만이였다. 그 량도 간단치 않았다.

문제는 흙파기를 어느 시기에 하는것이 합리적인가 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 과정에 물칠에 하는것보다 비록 날씨는 추워도 겨울철에 하면 물길의 바닥흙을 덩어리로 꺼내는것은 물론 운반하기도 쉽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후 이 사업은 농장적인 범위에서 추진되였다. 운반수단들이 총동원되고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포전들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거름더미들이 련속 생겨났다.

농장의 일군들은 진취적인 일본새로 구체적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 올해농사의 다수확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리영학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이

스웨리예왕국 수상을 만났다

외무성 부상 한성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이 1월 30일 스테판 뢰프벤 스웨리예왕국 수상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스테판 뢰프벤 수상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 단장인 한성렬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스테판 뢰프벤 수상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스웨리예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과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외무성 부상 한성렬동지는 스웨리예외무상을 의례방문하였으며 외무성 국무비서와 회담하였다.

의례방문과 회담에서는 쌍무관계 및 조선-EU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새해농사차비성과 확대

함경북도안의 농촌들에서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210여만t의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활창대를 비롯한 영농자재와 중소농기구준비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불붙는 협동벌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농장원들에게 농업전선에서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주며 그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새해전투에 진입한 화대, 어랑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도처에서 거름원천을 찾아내여 20만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거름을 생산하였다.

희령시 창호, 인계협동농장, 길주군 정북, 덕신협동농장에서는 수만t의 부식토를 확보하여 포전들에 실어냈으며 명간, 경성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매일 많은 흙을 구워내여 지력을 높이고있다.

김책시, 경원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중소농기구와 농기계준비를 빈틈없이 하면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활창대와 모판나래, 방풍나래를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집중적으로 장만하고있다.

한해농사의 성과가 농사차비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한 무산, 부령군 등의 농업근로자들도 중소농기구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를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농사차비에서 현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의 년대마다 높이 발휘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천리마시대의 비날론속도는 병사들의 위훈을 전한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몇개월이 걸려야 한다면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급수침전지개건공사를 단 6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한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의 일이였다. 수만㎥의 해묵은 감탕을 처리해야 하는 침전지공사는 수평갱사용위의 성벽, 일심단결의 성새를 이룬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전투였다. 장령도 병사도 한덩어리가 되여 허리치는 감탕속을 헤치면 모습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로 혁신과 위훈을 새겨가던 인민군군인들…

조선인민군창건일이 새겨져있는 기업소의 명칭이 그대로 말해주듯이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걸어온 력사의 갈피속에는 인민군군인들의 피와 땀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그 갈피의 첫장에는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여 세인을 놀래웠던 군인들의 위훈담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날론공장건설장을 찾아주시였던 주체49(1960)년 8월의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시작된다.

건설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비날론공장건설에로!》**라는 구호를 받들고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비날론공장건설은 50만㎡의 부지에 덩지가 큰 건물만 하여도 30여개를 일떠세우고 1만 5천여개의 기계설비들과 장치물들을 조립설치해야 하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최대의 산업건설이였다.

풋세들만 우짖던 잠초무성한 룡흥벌에서는 건설자들의 우렁찬 창조의 노래소리가 대합창으로 울려퍼졌다. 그 대합창의 선창자는 언제나 우리 병사들이였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된지 몇달 안되는 사이에 전반적인 기초과기작업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1만㎥의 콩크리트타입작업을 해야 하는 50여개 대상의 기초공사도 단 석달동안에 끝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군인건설자들이 일을 잘한다고, 군대가 하니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능률도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현장의 한곳에 눈길을 주시였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쓴 글발이 걸려있었다.

《이 공장을 어서 지어 아버지, 어머니, 누나에게 더 많은 옷감을 보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글발을 보고 또 보시며 정말 군인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저 구호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심장을 틀어잡았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하나의 평범한 글발에서도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병사들의 정신세계를 그려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인민군군인들은 공장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길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였다.

군인들은 다음해 5.1절까지 비날론공장건설을 완공할것을 맹세하고 8.28돌격대, 2.8돌격대 등 많은 돌격대들을 조직하였다. 돌격대들사이에 치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록에서 하루밤사이에 1만㎥의 토량을 퍼낼 때 지록에서는 5백여㎥의 콩크리트를 다졌으며 다른쪽에서는 10만장의 벽돌을 쌓았다.

《나는 두메산골에서 자랐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대를 이어오면서 베옷에 조선을 신고 살았다. 하루속히 비단천을 짜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풍족히 공급하기 위해 내 어찌 노력하지 않겠는가.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질 그날까지 300%의 작업능률을 내기 전에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은 건설에 참가한 한 병사가 자기의 수첩에 적어넣은 글이다. 병사는 그후 300%의 작업능률을 내고도 성차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슬그머니 작업장에 나가 다른 중대병사들과 함께 계속 일하였다.

어찌 그 병사만이랴. 어깨에 장령별을 단 지휘관으로부터 나어린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슴속에는 당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이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하늘도 찌를듯싶은 군인건설자들의 기세에 건설장의 모습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달라졌다. 아침에는 길이던 곳이 저녁에는 키를 넘는 도랑으로 변했고 하루밤 자고나면 산같이 쌓였던 모래와 자갈, 세멘트무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벽체들이 우뚝우뚝 솟아올랐다.

당시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되었다.

《전우라면 한삽 더 담아달라!》

어느날 깊은 밤 군인들의 병실안은 고요속에 잠겼다. 교대를 마친 군인들이 자고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자는척 하고있었다. 억지다짐으로 자리에 눕히는 지휘관들의 엄한 눈빛에 못이겨 자리에 누운 병사들이였다. 그러나 잠자리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전투장에 가있었다. 그들중 어느 한 전사는 낮에 정이 무디여져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것이 후회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직일병에게 말했다.

《직일병동무, 3시에 나를 깨워주시오. 고향에 편지 한장 쓰겠소.》

직일병은 그가 진짜 편지를 쓰려나 하고 3시에 깨워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야장에서 10여개의 정을 벼리고 작업공구들을 준비해놓고서야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만이 아닌 건설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이 종이장우에가 아니라 조국의 대지우에 먹으로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한자두자 위훈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500%는 수수하고 1000%면 괜찮다는 놀라운 속도, 비날론속도가 창조되였다.

천리마시대의 건설신화를 창조한 비날론속도, 그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하고야 마는 인민군군인들의 불보다 뜨거운 심장의 박동속도였고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군대의 원민전통에 뿌리를 둔 새로운 건설속도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불같은 헌신에 떠받들려 2-3년이 걸려야 한다면 비날론공장건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났다.

주체50(1961)년 5월 6일 완공된 비날론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공장의 명칭을 2.8비날론공장으로 부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이 나날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내 조국의 방방곡곡에 무수히 일떠섰던가.

주체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뜨겁게 어려있다.

이런 인민의 군대를 위해 무엇을 서슴으랴, 무엇을 아끼랴.

이것이 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이 다가오고있는 요즘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민심이다.

그 민심에서 우리는 절감한다.

혁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라고.

본사기자 신 철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

군인의 본분

어느해 겨울이였다. 군사임무수행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관 윤형권동무와 사관 신승호동무는 아이들의 자지러진 고함소리를 듣게 되였다. 그들의 눈앞에 저수지의 한복판에서 깨여진 얼음장을 부여잡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윤형권, 신승호동무는 저수지로 달려가 주저없이 차디찬 얼음물속에 뛰여들었다. 그들은 학생들을 얼음우에 안아올렸다. 하지만 얇은 얼음장은 계속 꺼져내리기만 했다. 그렇게 하기를 그 몇번, 산물속에서 떨주먹과 팔굽으로 얼음장을 깨며 얼음이 두터운쪽으로 전진하느라 그들의 기운은 점점 진해갔다. 전신만고하여 끝내 학생들을 얼음장우에 올려놓은 그들은 물속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다.

오늘도 영웅의 모습으로 영생하는 윤형권, 신승호동무들, 그들의 실천행동은 말해주고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의무로, 마땅한 본분으로 간직한 참된 수호자들이라는것을.

병사의 이름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5월초의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한 마을의 살림집에서 뜻밖의 일로 불이 일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8세대의 살림집을 온통 세찬 불길로 휘감았다. 사납게 번져지는 불길앞에서 모여선 사람들은 불붙은 집주인들까지 어쩔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한 군인이 불붙는 집안으로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조선인민군 사관 한철룡동무였다. 그가 한집에서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가슴에 안고 뛰여나올 때 위미처 달려온 여러명의 군인들도 불붙는 집들에 뛰여들어갔다.

불길은 더 세차게 번져지고 기와장들이 탕탕 튀여나고 매캐한 연기로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군인들은 결사적인 전투를 벌리였다.

군인들의 옷은 불에 타고 화염에 그슬린 얼굴은 말이 아니였다. 모여선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팔을 벌려 막아나섰다.

《인민의 재산이라면 실가락 한개라도 다 꺼내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군인들은 힘이 진할 때까지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불길이 사그라진 다음 군인들이 안아내온 집재산들을 뒤져보면 인민들이 소속과 이름을 물었다. 군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흔연히 말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입니다.》

그 부름을 뜨겁게 새겨보는 인민들의 가슴속에 우리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넘쳐났다.

나무와 뿌리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그것이 인민의 땀이 스민 재산이라면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다.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에서 《비상사건》이 일어났다. 병사 정상길동무가 한 란광마을 로인의 집에서 호미를 빌려쓰다가 자루를 부러뜨렸던것이다. 호미날도 구부러졌었다.

구분대 정치지도원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수천자의 한 로인의 손때묻은 도끼를 귀중히 여기시며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호미를 잘 수리해서 돌려준다고 해도 그 로인의 땀이 배인 호미는 대신할수 없소. 보상할수 없단 말이요. 오늘 일을 두고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겠소.》

그는 정상길동무와 함께 호미자루감을 해왔다. 그리고 란광의 공무직장 로동자들과 함께 구부러진 호미날을 펴고 새 호미날도 어려게 벼려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로인의 집으로 갔다.

로인은 호미를 돌려주며 사죄를 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군인동무들이 쓰다가 그렇게 된걸 가지구 누구도 탓하는 사람은 없네. 인민군대가 지키는 조국이 있고서야 인민도 있고 인민의 재산도 있는게 아니겠나.》

그들은 로인의 손을 잡고 진정을 터놓았다.

《인민을 떠난 군대는 뿌리가 끊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고계십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군민》, 그 부름과 더불어 빛나는 창조물들

군대는 인민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 인민은 원군을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화폭이 있다.

마식령스키장의 문명바람을 타고 흰눈덮인 산발을 지쳐내리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하늘가득 넘치는 강원땅에 가면 천산군민발전소가 있고 산골군인 화정군에도 군민다리가 있다. 어찌 그뿐이랴.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원군원민의 미풍은 더욱 활짝 꽃펴나 온 나라 방방곡곡에 《군민》, 그 부름으로 빛나는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니 그 모습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화폭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대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땅에 솟아난 장강3호군민청년발전소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잘 보여주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인민들을 도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발전소를 일떠세움으로써 군민단결의 모습을 시위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연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하여 각지에 군민발전소들을 수많이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기여하였다.

군민거리와 군민회관, 군민체육관, 군민식료공장, 군민저수지, 군민돼지공장, 군민양어장을 비롯하여 전국도처에 생겨난 창조물들은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였다.

지금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10여년전 뜻밖의 자연재해가 들이닥쳤던 양덕땅에 울려퍼진 노래소리가.

…

병사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풍요한 들판과 마을에 물어보라
그리면 말해주리 농장을 도와
가려준 이삭들이
등에 업혀 물건너간 유치원아이들이
…

우리 인민만이 부를수 있는 노래였다.

어찌하여 인민들은 그처럼 떠나가는 병사들을 품에서 놓지 못하였고 병사들은 어찌하여 그토록 인민들과 헤여지기 힘들어하였던가.

피해지역 인민들을 돕기 위해 떨쳐나선 군인들은 공사 첫날부터 양덕땅의 나무 한그루, 흙 한줌도 자기 살점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복구전투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땅에 묻히는 다리기둥도 휘틀자리가 날세라 마음쓰며 정성을 바친 군인들을 못 잊어 양덕땅인민들은 그 다리에 정을 담아 《군민다리》라는 새 이름을 붙이였다.

사람들이여, 전국도처에 건설된 《군민다리》들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그것은 단순히 길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아니다. 백두에서 창조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영원히 꽃피워갈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하나로 합쳐주는 마음의 다리가 아니랴.

그리고 귀중히 여기시라.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군민대단결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총직하게 받들어갈 한마음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떠세워가는 창조물들을.

본사기자 신 현 규

◎ 한전호에서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

날바다를 가로막은 힘의 원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우리 군대의 강대한 힘의 상징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자랑찬 결실이다.

주체70(1981)년 5월 중순, 서해갑문건설전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방대한 과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건설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당의 믿음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사나운 파도와 맞서싸우며 기존공법으로 수십년이 걸려야 한다던 갑문건설을 불과 5년동안에 해제끼고 주체75(1986)년 6월 24일 서해갑문의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서해갑문건설에서 무려 100여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였는데 그중 80여명이 조선인민군 군인들이다. 위훈은 군인건설자들속에서만 꽃펴나지 않았다.

세 자식을 갑문건설장에 보낸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예순이 넘은 나이에 갑문건설장에 달려와 몇년을 하루와 같이 건설자들의 뒤바라지를 해주고 식당일을 도와준 《삼지연3형제》의 부모와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정원의 어머니》, 그들만이 아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갑문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위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꽃펴났다.

당에 대한 충정심에 기초한 군인대단결, 바로 이것이 20리 날바다우에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힘의 원천이였다.

황일의 원군, 원민전통이 창조된 곳에서

주체105(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사이에 우리 조국의 북변 두만강류역에서는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홍수가 밀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렸다. 그로 하여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피해복구전투의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시고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려는 당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복부피해복구전투의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맡아나선 인민군군인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새로운 건설신화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 일본새를 본받아 사회의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도 당의 믿음, 온 나라 인민의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리며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사이에 오고간 뜨거운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참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과 극악한 제재봉쇄가 감행되는 최악의 조건속에서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복부전역을 천지개벽시킨 장쾌한 승전로정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군민일치사상의 위대한 승리였다.

군민이 하나되여 승리의 려명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9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4 800세대이상 되는 44동의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40여동의 공공건물을 일떠세우고 70여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건해야 하는 려명거리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거창한 대건설전투였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려명거리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려명거리건설이 2016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석달동안이나 중지되였지만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군민대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억센 힘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려명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려명거리건설에서 대승전고를 울림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존엄, 조선로동당의 권위를 사수하였으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였다.

정 영 철

이런 당일군이 있어 혁명의 꽃은 계속 핀다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는 김정숙군당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영예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런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존대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김정숙군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김창수 군당위원장이 군을 책임진 일군으로 임명된지는 1년 남짓하다. 그 나날 그가 영예군인들을 위해 바친 헌신의 자욱은 수없이 많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온 군이 기쁨에 넘쳐 양력설명절을 즐기고있을 때 생눈길을 헤치며 태양로동자구로 달리는 한대의 승용차가 있었다.

차안에는 군당위원장과 군인민위원장을 비롯한 군안의 일군들이 타고있었다. 그들은 특류영예군인인 강호동무의 집을 찾아가고있었다.

그런데 눈덮인 산길로 반시간남짓이 기세좋게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어섰다. 산골물이 흘러내려 도로에 얼음판을 만들었던것이다. 도로왼쪽에는 아찔한 낭떠러지가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일단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성미인 군당위원장을 잘 알고있는 운전사는 차발동을 다시 걸었다. 차가 조심히 얼음판에 들어섰다. 그런데 불현듯 차가 헛바퀴질을 하더니 지치기 시작하였다. 순간 차안에 있는 일군들의 눈에는 긴장한 빛이 어렸다. 낭떠러지로 지치던 승용차는 다행히도 길옆의 도랑에 빠졌다.

차문을 열어제끼고 밖으로 나온 군당위원장의 앞에는 온통 눈에 덮인 산봉우리들과 도로가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져있었다. 뒤따라온 한 일군이 말했다.

《저런 얼음판들이 앞에 또 있겠는데 이제라도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준비품은 후에 저희들이 가져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군당위원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분명 강호동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군당위원장이 강호동무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석탄전이였다.

군당위원장으로 배치된지 나흘째되는 날, 지팡이로 가던 길에 특류영예군인이 태양로동자구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 들렸었다.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는 그의 기분상태는 좋지 못했다. 23살에 특류영예군인이 된 그는 제대되지 오랬으나 남들처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도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느끼게 되였으며 활력에 넘쳐 생활을 락천적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강호동무뿐이 아니다.

어느 한 영예군인이 가정사정으로 맥을 놓고있을 때 군당위원장은 문학에 소질이 있는 그에게 인민군대에 나가게 될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앞에서 혁명적인 시와 노래도 불러주고 짬시간마다 좋은 시도 창작해보라고 신심을 주며 이끌었다.

이에 힘을 얻은 영예군인은 어제날의 병사시절처럼 밤을 새며 창작전투를 벌려나갔다. 그 나날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100돐을 계기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시작품집을 올려 기쁨을 드리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영예군인들을 위해 밀거름이 되고있는 군당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그중에는 군인민병원을 현대화하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한 일군을 부른 군당위원장은 아무래도 병원세면장을 개조해야겠다고 말하였다.

그 일군은 처음 의아해했다. 손색이 없이 꾸려진 세면장이였다.

그와 함께 병원에 나간 군당위원장은 바닥과 내부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바닥이 이렇게 매끄러운데 영예군인들이 상할수 있지 않겠소. 바닥재를 교체합시다. 그리고 벽체에 세수대야도 설치해줍시다.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영예군인들도 있지 않소.》

그러면서 군당위원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영예군인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병원현대화를 비롯하여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영예군인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마디마디 정이 넘치는 군당위원장의 이야기는 일군들의 가슴을 쳤다.

이렇게 되여 세면장은 다시 꾸려지게 되였다.

김창수 군당위원장은 늘 자식의 웃음넘친 얼굴에서 기쁨을 찾는 다심한 어머니처럼 영예군인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커다란 만족을 찾는 참된 당일군이다.

지난해 11월, 군당위원장은 한 영예군인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수십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신부를 데려올수 있게 차조직부터 하고난 그는 결혼식준비에 필요한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당에서 금싸래기처럼 아끼는 영예군인이 결혼식을 하는데 아까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맡아서 보란듯이 잘 차려주자!)

즉시 모임을 연 군당위원장은 일군들에게 말하였다.

《모두들 자기 자식들을 시집장가보낸다고 생각하고 준비품들을 빠짐없이 불러들 보시오.》

좋은 의견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군당위원장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혼식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영예군인을 위해 진정을 다해가는 군당위원장의 마음은 군당일군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한 영예군인의 결혼식준비를 위해 군당일군들은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결혼식날에는 군당일군들이 영예군인의 새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었다.

영예군인의 어머니와 온 가족은 뜨거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어머니당을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품들여 준비한 수많은 가정생활용품들을 보며 가족들과 이웃들은 영예군인들을 위한 그 뜨거운 진정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이밖에도 김창수 군당위원장이 영예군인들을 위해 헌신한 사실들은 많다.

영예군인들을 존대하고 내세워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고있는 이런 당일군들이 있어 혁명의 꽃은 계속 피여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허 일 무

보답의 일념안고 걷는 길

사리원시 청성동 63인민반 최영호동무의 가정에서

영예군인 최영호동무의 온 가족은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보내줄 지원물자를 준비하며 시간가는줄 모른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차곡차곡 지함에 넣고있는 최영호, 리명선부부의 얼굴에도, 돌격대원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막내딸 금정이의 눈빛에도 뜨거운 진정이 넘쳐흐른다. 최영호동무의 가정에서 이렇듯 애국충정의 길을 걷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몇해전 금정이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였다.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 딸을 바라보며 최영호동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력정의 마음은 보답의 일념으로 더욱 불타올랐다. 그때부터 최영호동무의 가정에서는 위대한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나갔다.

이 나날에 자식들의 가슴속에는 충정의 마음, 애국의 마음이 더욱 소중히 자리잡게 되였고 아들 국철이는 모범군인이 되였으며 딸 금정이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이렇게 영예군인가정에는 두상의 기념사진이 모셔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애국충정의 자욱이 비껴있는 지원증서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였다.

당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이런 고결한 마음을 안고 애국의 길을 걷고있는 가정들이 많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은 혁명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번모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해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주 령 봉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

력사의 광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를 가로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으며 정보모략기관들은 물론 정부기관들과 비정부기구들 지어 대학들과 과학기술연구소들까지 인입시키고있다.

대상은 전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다. 주되는 목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환상조성책동에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량면술책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환상은 어떤 존재나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도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좋게만 보고 대하는 비과학적인 견해와 태도를 말한다.

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제힘을 키우지 않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계급의식이 흐려지게 되며 창조성이 마비되게 된다. 나중에는 나라의 운명이 통락당하고 인민이 제국주의의 노예로 굴러떨어진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변장술로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원조》와 《협력》, 《평화》와 《인도주의》를 부르짖으며 마치도 저들의 침략적본성과 야망이 깨끗진듯이 표방하고있다. 《반테로전》을 《정의》로 광고하며 저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 미화해보려 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와 《복지사회》를 선전하며 물질적번영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선전에 속아넘어갈수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조성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을 《협조자》, 《벗》으로 오판하며 그들과 손을 잡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잃게 만든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국력도 강화할수 있고 존엄도 지켜낼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자존심이 없이 비굴하게 행동하게 되고 자주권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자연히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처사들에도 순종하게 되고 그들에게 의탁하게 된다. 결과 모든것을 제국주의자들이 하자는대로 하는 꼭두각시가 되고만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 빠져 사회주의위업을 포기한 나라들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복귀후 이 나라들에서는 극력이 심히 약화되고 내부분쟁이 일어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빠져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국제무대들에서 자기의 견해조차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경제에서 자립성을 잃게 만든다.

제국주의자들은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며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있다. 마치도 저들의 《원조》가 없이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이 발전할수 없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지난 시기 여러 나라들은 경제적난관이 조성되자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방식에 맞는 출로를 찾을 대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환상과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부유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빈곤해졌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해 경제적으로 예속당하고 풍부한 자원을 략탈당하였다.

《협력》의 간판밑에 진행되는 《투자》놀음 역시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예속과 지배를 노린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추켜세워보려는것은 스스로 명에를 쓰는 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투자》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건설의 목표와 방향을 자기 실정에 맞게 세울수 없게 된다.

엄중성은 《원조》와 《협력》이라는 미끼를 물게 되면 예속을 피할수 없고 자기의 자원을 고스란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섬겨바쳐야 하며 그들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 자주독립을 이룩할수 없고 언제가도 경제적자립을 실현할수 없다. 영원히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전락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주는듯이 표사하고있는 《원조》와 《협력》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과 예속의 올가미이며 지배야망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면 주권을 침해당하고 통락당하게 되며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태가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은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있다.

환상조성은 세계지배야망실현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면 제국주의의 잔명을 부지하도록 해줄뿐아니라 자기 운명도 망치게 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경계하여 뿌리뽑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뿐이라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손 소 연

미국과 보수세력을 규탄 민족적화해를 가로막는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민중당 경상남도당위원장이 얼마전 경상남도청에서 민족적화해와 조선반도평화실현을 가로막는 미국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최근 미국과 《자유한국당》이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서태평양수역으로 출항시키고 《스테니스》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증강배치하려고 한다고 까밝혔다.

이미 일본에 와있는 《로날드레간》호까지 포함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3척의 미핵항공모함이 배치되는것으로 된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트럼프가 남북대화에 찬성하는것처럼 놀아대면서도 뒤에서는 민족분렬을 고착시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속심을 드러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남북단일팀구성 등을 반대해나서면서 민족의 화해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가로막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수십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특권을 누려온 분렬적폐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과 북사이의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분렬을 유지하여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당 룡산구지역위원회가 1월 25일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을 가로막는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관계개선에 검은 재를 뿌리며 한사코 시비질을 하고 방해공작을 벌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특수작전부대와 전략무기들을 끌어들이고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강행하려는 음직임을 보이면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간의 합의들을 사사건건 시비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온 민족이 념원하고 전세계가 바라는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을 분렬시키는 온갖 책동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나아가는 민족의 위대한 발걸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남 조 선 시 민 단 체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석방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월 25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1155차 목요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량심수전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계층이 그 실현을 위해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각계의 지탄과 배척속에 고립되는 동족대결광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라경원년을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시킬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청원운동이 벌어지고있다.

1월 20일부터 시작된 청원운동에 23일 오후현재 20만여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와 주동적인 관계개선조치들에 의해 동결상태에 있던 북남관계가 통일을 바라는 민족모두의 뜨거운 지향과 요구에 맞게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라경원년은 홍준표, 김성태, 심재철, 함진규, 김무성 등 보수의 떨거지들과 함께 《북무력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전략》이니, 《한미동맹와해를 노린 위장평화공세》니, 《제재돌파를 위한 술수》니 하는 악담을 퍼붓다 못해 《올림픽이 북제재선전장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단일팀구성은 남측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라는것》이라는 나발까지 불어댔다.

지어 이년은 북남단일팀구성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장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내는 추태를 부렸다.

격분한 남조선 각계층은 청와대홈페지에 《라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내고 대중적인 련대운동에 돌입하였던것이다.

한 청원자는 글에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을 맡은 라경원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단일팀반대서한을 보내고 한반도기입장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청원자는 《라의원은 위원직을 이렇게 개인적,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고 하면서 라경원을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파면해달라고 하였다.

《련합뉴스》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이번 청원은 북의 평창올림픽참가가 생김새되면서 사흘만에 20만명의 참가를 끌어냈다. 청와대가 한달내 20만명 참가시 답변이라는 원칙을 밝힌 후 가장 짧은 기간에 이 조건을 채운 청원이 되였다.》고 전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대결광녀 라경원과 같은 보수패들의 망녕된 《반북》소동을 두고 《민족도 모르는 쌍년》, 《미가 다른 개종자들》, 《벼락맞아 뒈질놈들》, 《한치앞도 내다 못 보는 멍청이들》 등 저주의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이것은 그가 누구든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도전하며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에서 살길을 찾으려 한다면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민족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꽁 고 단 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여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가 1월 22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였다.

호소문은 2018년은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의 거대한 업적이며 유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일흔돐이 되는 의의깊은 해이라고 하면서 평화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정화애호의지에 의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제기들이 마련된데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창건이래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해온데 대하여 밝히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적극 합세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로씨야대통령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배격

로씨야대통령 블라지미르 뿌찐이 1월 30일 한 담화석상에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미재무성이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정부, 련방정의회, 국가회의 등 지도부성원들과 주요회사 및 은행책임자들의 명단을 거들먹 《크레믈리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가기마련이므로 미국의 《크레믈리보고서》에 대해서보다 자기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로씨야인들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나라의 경제와 농업에 관심하며 수술, 보건, 교육에 대한 지원과 국방력강화에 전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명단을 작성하고 위협하며 놀래우거나 로씨야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것을 인식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무슨 일에 전심해도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명언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법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죄

미국의 오클랜드시장이 1월 24일 이주민문제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죄하였다.

미사법성이 이주민들을 박대하고 배척하는것을 물자로 하는 이주민법을 실행할것을 오클랜드시를 비롯한 전국의 20여개 도시들과 주들에 강박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부당한것으로 락인하고 련방정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단체들 《싸드》유지를 위한 기만술책을 규탄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소성리《싸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와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싸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1월 29일 경상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유지를 위한 경상북도당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싸드배치 절사반대!》, 《싸드배치지역 개발지원요구 중단하라!》, 《싸드적폐계승 개발지원단 해체하라!》, 《주민피눈물 팔아 정치리익 챙기려는 김관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경상북도청의 망동에 분노를 표시하였다.

발언자들은 지난 15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이 《싸드》배치로 인한 그 무슨 보상의 명목하에 배치지역개발지원단을 확대, 개편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들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과 원불교인들이 《싸드》배치를 반대하여 520여일동안 투쟁하여왔다고 주장하였다.

《싸드》배치를 철회하는것외에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도 필요없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경상북도청 역시 《싸드》배치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청이 주민들의 의사에 전면배치되는 개발지원요구를 즉시 중지하고 개발지원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하였다.

남조선로조단체 업주측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금속로조 울산지부 동진지회가 1월 29일 울산시청에서 업주측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업주측이 로조와 합의를 하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로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고용과는 거리가 멀고 기업주의 리익만을 위한 공장매각이 추진되고있다고 존재자체를 위협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업주측은 현재 추진하고있는 일방적인 공장매각을 걷어치우며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로동시간감소 등 얌은수를 쓰지 말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주도의 련합군을 비난

유엔주재 이란상임부대표가 최근 미국주도의 련합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주도의 군사적침공이 있은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와 지역 그리고 세계는 보다 안전해지지 못하였다고 까밝혔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들에서 지역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협력하는것이 안전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도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일본지방의회 미군용기들의 비행을 중지시킬것을 요구

일본 오끼나와현의 기노완시의회가 1월 23일 주일미군용기들이 사고를 연방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항의하는 결의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결의와 의견서는 미군의 한심한 정비체계와 군용기사고에 대한 태도를 문제시하면서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후텐마미공군기지소속 군용기들의 비행을 금지하고 2019년 2월말까지 비행장의 운용을 중지시킬것을 일미정부에 요구하였다.

기노완시에서 미군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일본 오사까부의 네야가와시에서 최근 33살 난 녀성이 집안에서 15년동안 감금생활을 하다가 얼어죽은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얼어죽은 녀성의 부모는 자기 딸을 집안에 가두어넣고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학대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살 인 범 죄 성 행

결국 딸은 쇠약해졌으며 지난해 12월 집에서 얼어죽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1월 29일까지의 4일동안에 총기류범죄로 19명의 사상자가 났다.

한편 1월 29일 뽀르뚜갈중부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외세의 침략책동을 쳐물리칠것을 호소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1월 26일 까라까스에 모인 1만명의 대학생들앞에서 연설하면서 외세의 침략책동을 쳐물리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유럽동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였다.

베네수엘라는 자유로운 주권국가이며 베네수엘라인들의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청년들이 외부세력의 침략행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테로반대투쟁

이란안전군이 1월 27일 나라의 서부지역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이슬람교국가》테로조직성원 5명을 처단하고 16명을 체포하였다. 이에 앞서 26일 알제리군대는 8명의 무장야당을 소멸하고 무기와 수류탄, 탄약을 압수하였다. 최근 마로끄의 한 재판소는 각종 테로를 일삼던 13명의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일본의 침략무력증강책동

일본이 침략무력증강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항공《자위대》의 미사와기지에 처음으로 《F-35A》전투기가 배비되였다. 앞으로 총 42대의 《F-35A》전투기가 항공《자위대》에 납입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습지의 날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고 농촌지구가 도시화되고있다. 도시의 규모와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도시인구는 40억명이상으로서 세계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 가서는 64억명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현재 100만명이상의 주민들을 가지고있는 대도시는 1 000여개나 된다.

도시가 번성하고 거기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서적인 생활환경을 꾸려나갈수 있는것은 도시습지의 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습지라고 하면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강과 호수, 못 그리고 썰물때 물깊이가 6m를 넘지 않는 바다가수역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습지는 그 무엇도 대신할수 없는 생태봉사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우선 도시습지는 도시운영에 필요한 물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또한 물을 토양속에 축적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도시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여준다.

어느 한 나라에서 해일을 동반하는 태풍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들이닥쳤을 때 도시에 있는 습지로 하여 6억US$이상의 경제적손실을 면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도시습지는 도시의 기후를 조절하고 물의 오염도를 떨구어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도시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정서적인 휴식공간 등을 제공해주는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년간 이러한 도시습지들이 사람들의 여러가지 활동에 의해 파괴되여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 세계습지의 60%이상이 파괴되였으며 해마다 2만 4 000여정보의 습지가 사라지고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국제사회는 올해 세계습지의 날의 주제를 《지속적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로 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습지보호사업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 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습지보호사업의 기본고리로 되고있는 도시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도시와 그 주변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한편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공업폐수가 강과 호수에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철저한 정화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도시의 존재와 그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여주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것이다.

오늘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주 송 이

조소거리로 되고있는 미국정치의 실상

트럼프집권후 미국정계에서 희극적인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일동안 미국정부의 업무가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에 대한 자금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지난해부터 미국정부는 자기 회계년도에 따른 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몇주 또는 몇달을 기한으로 한 림시예산안들을 채택하는데 따라 운영되여왔다.

이번 정부폐쇄사태는 《미국우선주의》간판을 내건 트럼프에 의해 복잡한 정치적문제들이 산생되면서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진것과 관련된다.

정부폐쇄사건은 지난 1월 19일에 미국회 상원에서 림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올해 1월 19일까지 정부에 림시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게 한 법은 지난해 12월에 발효된것이였다. 이 법의 기한이 끝나고 새 림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업무가 일시 정지되였던것이다.

불법이주민문제로 인한 갈등이 기본원인으로 되였다.

민주당이 오바마행정부시기에 만들어진 어린이도착유예행동을 계속 유지할것을 주장한 반면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어린이도착유예행동은 미국에 어렸을 때 들어온 근 80만명의 젊은 이주민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번에 민주당은 저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다. 결과 국회 상원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새 림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예산안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찬성표 60개가 나와야 한다고 한다.

1월 22일에 새 림시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여 정부가 다시 운영되였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로출시켰다.

그것은 트럼프의 무능력이다.

미국의 CNN방송은 트럼프가 그날은 백악관물방에 박혀있으면서 문제토의의 중심에 서있지 못했다, 트럼프의 부동산업자로서의 거래흥정기교가 정치에는 통하지 않는것이다고 신랄히 야유조소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번 련방정부의 폐쇄는 트럼프의 정치적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여 세상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불른 빈번한 당파싸움으로 하여 언제 한번 조용한 날이 없는 미국에서 련방정부폐쇄사태가 처음 일어난것은 아니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의 1995년, 오바마행정부시기의 2013년에도 련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미국의 쌔어빠진 정치실상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그때는 국회 상원과 하원을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독차지하지 못하고있은것으로 하여 변명할수 있는 구실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회 상하량원의 주도권은 공화당이 장악하고있다.

이것을 념두에 두고 영국의 BBC방송은 이번 트럼프행정부시기의 련방정부폐쇄에서 특이한 점은 대통령소속의 정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일어난것이라고 트럼프의 무능력을 예불러 비판하였다.

미국사회뿐만이 아닌 전세계적범위에서 트럼프를 정치적무능력자, 미숙아로 취급하는 풍이 지배하고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배척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언론계와 체육계는 물론이고 외교계도 미치광이처럼 놀아대는 트럼프에게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지난해 3월부터 12월초까지 총 353명의 외교관들이 사임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임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고 보도하여 사회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미국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선망의 직업》으로 바라보는 외교관직업을 스스로 버리는 정도니 미국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환멸감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고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얼마전에 사임한 빠나마주재 미국대사는 자기는 트럼프를 위해 더이상 일할수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그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오물더미는 비단보자기로 가리워도 악취가 풍기는것처럼 트럼프가 아무리 허세와 허튼 말장난질로 국도의 무능력을 감추려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다.

당파싸움이 그칠새없고 국사가 개판으로 되고있는것이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되고있는 미국의 정치실상이다.

본사기자 김 승 걸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로사건 발생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1월 27일 폭탄테로행위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날 정부청사들이 자리잡고있으며 여러 나라 대사관들로 가는 거리에서 폭발물이 설치된 자동차가 폭발하였다.

폭발은 사람들이 붐비는 점심시간에 일어난것으로 하여 현재까지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103명이 목숨을 잃고 235명이 부상당하였다.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카불에서 감행된 폭탄테로행위를 준렬히 규탄단죄하고있다.

남아프리카에서 심각한 물위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시에서 최근 물위기가 심각해지고있다.

계속되는 가물로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의 물량이 줄어들고있으며 4월 중순에는 완전히 고갈될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서부케이프주에 있는 43개 언제들의 물저장량도 지난 1주일동안에 1.37% 감소되였다. 1월 25일 정부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물절약투쟁을 강화할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반이스라엘투쟁에 떨쳐나설데 대해 강조

아랍국가련맹 총서기 아흐마드 아부 알 게이트가 1월 28일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반이스라엘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아프리카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유엔안보리사회 비상임리사국진출을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유태복고주의정권은 이를 통하여 자기의 국제적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지난 시기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의 강점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편에 서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배격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18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